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본질적내용

박 정 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생관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주심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을 누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회가 없이 떳떳하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352페이지)

인생관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은 사람이 자기 생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준다.

사람은 참다운 인생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체질화하여야 삶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애국헌신으로 수놓으면서 혁명의 길을 값있게 걸어나갈수 있으며 인생의 마무리도 빛나게 장식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사는것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산다는것은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와 집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집단을 단위로 하여 살며 투쟁한다.

사회적집단은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이다. 집단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떼어놓고는 련결되어있는것만큼 집단을 떠나서 개인이 살수 없다.

개별적사람들은 오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야 혁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사람들은 집단의 리익을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겨야 한다.

집단의 리익이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자각한 사람만이 높은 창발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자기 개인의 운명도 가장 훌륭히 꽃피워나갈수 있다.

개별적사람들의 한생은 끝이 있지만 사회적집단은 영원히 존재한다.

자기 개인과는 비할바없이 귀중하고 영원한 사회적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생활이며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보람있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한다. 만일 사회적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하

여 살다가 생을 마친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사회와 집단은 어떻게 되든 자기 한몸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생활은 본질상 동물의 생활과 다를것이 없다.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사는 생활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게 되며 그런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는것도 없고 남겨놓는것도 없기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 시대는 모든 성원들이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혁명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결한 품모가 온 사회에 더욱더 활짝 꽃피어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대에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인간, 동지들의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혁명의 수뇌부의 안녕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뇌부의 권위와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며 수뇌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와 집단의 요구가 당과 수령에 의하여 대표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의 최고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행복관, 인생관, 혁명관, 조직관, 도덕관은 수령관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수령관의 기본핵은 어디까지나 수령에 대한 충정이다.

수령에 대한 충정에 참다운 생활이 있고 보람이 있다.

누구나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할뿐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할 때 사회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으며 참된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은 수령결사옹위가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철석같은 신념과 순결한 량심으로, 불굴의 의지로 되게 하여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높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은 다음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다는것은 자기는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목숨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며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자기자신과 자기 세대를 위해서뿐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 하는것이며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하는것이다.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싸워나가는데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있으며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만이 혁명의 길에서 생의 뚜렷한 흔적을 남길수 있고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할수 있다.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오늘의 시련과 난관은 일시적인것이며 래일의 승리와 번영은 필연적이고 영원한것이다. 신심과 락관만 있으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불타는 강, 험한 진펄길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다.

승리할 래일을 위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락을 보기 위해 혁명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의 락만을 바라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으며 시대의 락오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래일이 없는 오늘날 잘먹고 잘사는 인생은 타락한 인생으로서 결코 행복할수 없다.

만일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날을 위하여 살다가 한생을 마친다면 남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그런 사람의 한생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무의미한것으로 된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풍족하게 잘산다고 하여도 래일을 위한 투쟁, 후대들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아름다운 자옥, 생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창조해놓은것이 없으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만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땅우에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시대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참된 인간이 되자면 원대한 포부와 높은 창조정신을 지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오직 앞으로만 내달려야 한다. 그것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는것이 혁명가의 삶이며 투쟁속에서 벌어지는 생활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기때문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투쟁에서 보람과 기쁨, 행복과 영예를 찾으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단순히 주어진 생활을 누리며 만족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이 혁명하는 사람들의 기질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은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후대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을 지니고 무슨 일을 한가지 하여도 오늘뿐만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제로 하여야 한다.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고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물길건설과 도로건설,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건설을 한가지 하여도 10년, 50년, 100년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은 다음으로 조국의 뿌리가 되어 사는것이다.

조국의 뿌리가 되어 산다는것은 그 어떤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게 나무를 받쳐주는 뿌리와 같이 한몸바쳐 조국을 떠받들고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쉬임없이 줄기에 영양소를 주는 뿌리처럼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면서 산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과 애국자들사이의 관계는 거목과 뿌리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조국이 거목이라면 애국자들은 그 뿌리이다. 거목은 눈에 보이지만 뿌리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땅속에서 거목을 위하여 쉬임없이 일한다.

조국이라는 거목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자면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야 한다. 든든한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할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강성번영할수 없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은 생각하지 않고 애국애족의 한길에 발벗고 나서지 않으며 조국에 이바지하는것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어머니조국의 참된 아들딸이라고 말할수 없다. 결국 어머니조국의 아들딸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가 나서자란 조국, 자기가 안겨사는 어머니조국에 무엇인가 이바지하는것은 응당한 본분이다.

조국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이야말로 애국자의 신성한 의무이며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바로 애국자의 참된 삶의 가치가 있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얼마나 이바지하고있는가 하는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조국의 참된 아들딸, 애국자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려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할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우리 시대는 누구나 조국이 없으면 민족의 자주권도 존엄도, 오늘의 행복도 영예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대에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삶을 안겨주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른 우리 조국을 최단기간내에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생을 깡그리 바쳐가는 열혈의 애국투사가 되여야 한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애국자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은 사회주의강국의 억센 뿌리가 되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가 맡고있는 혁명초소들에서 성실하고 책임적으로 일을 잘하며 조국앞에 부끄럼없이 떳떳이 살기 위하여 오늘의 1분 1초를 위훈창조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내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 온 세상이 보란듯이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인생관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무장하고 실지 사업과 생활에 적극 구현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삶의 자욱을 뿌렸이 새겨가야 할것이다.